

유적지 순례 76

梅軒公 諱 士敏의 忠孝

매헌공 휘 사민의 충효



정려각(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808번지)



매헌공사당



매헌공 정려기문



효행 정려기문



육역서당(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12번지)



강당



육역서당 중건기



강당기

매헌공(梅軒公)은 5대조가 사정공(同正公)이며 선친이 귀봉공(龜峰公)이다.

명종 12년 출생하여 천자(天資)가 총명하여 6,7세에 운율(韻律)의 고저를 깨닫자 귀봉공이 '이런 인재가 늦게 태어나니 나의 선생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였다. 16,7세에 경서(經書)와 역사(歷史)를 익히고 주역과 논어 등 책을 놓지 않았으며 자리에 효제충신(孝節忠信)을 써놓고 '주역의 회인(梅畝)과 논어의 근본과 중용, 대학의 미묘함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것 없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사람도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고 하였다. 공은 스스로 호를 매헌(梅軒)이라 하고 여묘(廬墓)할 때 호랑이가 으르렁 거리자 '너는 영물(靈物)인데 어찌 남의 아버지를 놀라게 하느냐?' 울면서 바라보니 호랑이가 고개를 숙이고 가버렸다. 고로(老老)들이 이르기를 '공의 정성과 효성에 감동한 것이다' 고 하였다. 육징불부(六徵不赴)로 이름난 이승증(李承曾)이 선생의 효성과 공경함과 문파의 뛰어난 감탄하여 '권모의 도학(道學)과 문학(文學)은 실로 우리의 사표(師表)이며 영남 후학들이 자랑으로 여기어 본받을 만하다' 고 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탄복하며 '권모의 배운바는 스스로 연원(淵源)이 있다.' 고 하였다. 20세 이후 향시(鄕試)에 10여회, 회시(會試)에 4회 합격하였다. 글을 배우려는 자가 수천명에 이르니 학행(學行)으로 추천되어 7개 고을의 훈도(訓導)를 지내고 사옹원(司饔院) 주부(主簿)와 제용감(濟用監) 직장(直長)에 이르렀다.

경인년 밤에 천상(天上)을 보니 요성(妖星)의 빛이 청구성을 쏘니 왜구가 침범할 형상이다. 사람들에게 빨리 결혼하기를 재촉하였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니 자옥산 증봉에 이르러 참봉 김에 심을 만났다. 의병을 모을 계획을 물으니 김공이 이르기를 '무엇이 어렵겠소? 공의 두터운 명망은 선비의 마음을 추복(趨服)하게 한지 오래라 창의(倡義)한다면 누가 듣고 이르지 않겠소?'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팔공산은 영남의 중심이고 약암은 천해의 요새(要塞)이니 그곳이 좋겠구려' 하였다. 약암에서 일곱 고을의 의사를 모았다. 진중에 양식이 떨어지자 김공에게 이르기를 '공은 집안이 넉넉하니 비축해 둔 곡식이 있습니까?' 하니 '백여섬 자옥산 아래 갈무리되어 있소' 하였고 공은 '나도 서재를 위한 곡식 백여섬이 두류동에 갈무리 되어있소' 하고 차레로 운반해 먹었다. 왜적이 조령을 넘은 뒤에 작은 적을 만나면 활을 쏘고 돌을 굴러 죽인 적이 무수히 많았다. 하루는 의병 100여명을 계곡에 숨겨두고 몸소 적진과 충돌하였는데 적이 추격하다가 의병들이 돌을 굴러 모두 죽었다. 또 소공암에 술을 놓고 의병들로 왜적을 유인해 왜적이 술에 취할 때 진격하니 수백명 적의 목을 베었다. 갑오년(1594년) 만우당이 의병을 모으는 소식을 듣고 만우당 객재우(客在右) 휘하에 들어갔다. 객공이 칭찬하여 '적이 밀어닥칠 때 누가 피하지 않으리오만 그대는 의분을 떨치고 일어나 응모하였으니 참으로 의병(義兵)이라 이를 만하다.' 하였다. 삼가의 권양과 의령의 심대성이 힘을 합쳐 적을 무수히 죽였다. 공이 객선생에게 '창영에 화왕산성이 있으니 나라의 남문입니다. 이 성을 지킨다면 오적이 창궐하는 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니 객공이 '공의 충의를 듣고서 훌륭하게 여겼더니 이제 계책을 듣고 보니 시원스러움을 깨닫겠구려' 고 화왕산성에 들어갔다. 화왕산에서 많은 전공을 세워 훈상으로 인양현감을 제수하였으나 양친을 위해 경주 내남면 명에동으로 돌아와 후학을 가르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정유년 공은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여막에서 시묘하였다. 만년에 두름에 서실을 지어놓고 난리에 책이 불타버려 공은 손수 베껴 후학들에게 읽게 하니 문하에 선비들이 대과(大科), 소과에 오른 사람이 10여인이었다. 공은 근사록과 자경편을 좋아하였고 천한 종이라도 대접하므로 공의 성품을 볼 수 없었다. 도망간 노비의 자손이 부자가 되었더니 무과에 급제한 자 수백에 이르렀으니 자식들에게 들추어 내지 말라고 하였다. 노비 중 양인(良人) 소생은 속랑금(贖良金)을 주어 양인이 되도록 하였다. 인조 12년(1634년) 고종하니 향년 78세였다. 정조 6년 좌승지(左承旨)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으로 추증되었다. 문중에서 교지(教旨)를 보관하고 있다.

정조 8년 효충(孝忠)의 정려(旌闕)가 내렸으며 정조 12년 후학을 가르친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12번지에 육역서당(玉曆書堂)을 장건하여 제향(祭享)하였다. 내남면 망성리 808번지에 충효정려각(忠孝旌闕閣)과 공의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祠堂)이 있다. 매헌실기 4권이 있고 묘소는 경주시 내남면 노곡에 있다. 행장은 양관(兩館)대제학(大提學) 황경원(黃景源)이 짓고 묘지는 좌랑 남경의(南景義)가 지었으며 비문은 판돈령 이민보(李敏輔)가 지었다. 정려(旌闕)의 기문(記文)은 대제학(大提學) 홍양호(洪良浩)가 짓고 우의정 이취지(李徽之)가 썼다. 또 좌승지 심기태, 이조참의 조정진, 우의정 이취지, 규장각 제작 오재순, 예조참판 남현로, 우 참찬 흥문관 제작 수상, 풍성 조정화, 한성서윤 정지덕이 정려기를 쓰고 육역서당 상량문은 여강 이해상이 쓰고 강당기는 부윤 이원조가 썼다. 묘표는 오위도총부 부총관 조정윤이 쓰고 묘지명은 남경의가 쓰고 묘갈명은 여강 이해희(李在喜)가 썼다.

행장(行狀)은 규장각 제작 황경원(黃景源)이 쓰고 또 형조참판 김이성이 썼다. 홍양호가 쓴 정려기의 요지는 '공은 팔공산에 웅거하며 객재우와 더불어 군사를 합쳐 화왕산성에서 적을 크게 깨뜨려 영남의 좌도 10여 고을이 온전하였다. 의병을 일으킴에 증직되었으나 효행이 우뚝한 것을 보니 마땅히 표창하여야겠고 임금이 특별히 旌闕을 명하였다. 대제 사람의 큰 절의(節義)는 충효(忠孝)보다 더 숭상(崇尙)할 것이 없는데 공은 오직 충성으로 그 벼슬을 증직받았고 효성(孝誠)으로 정려(旌闕)를 받았으니 아! 상대하구나' 하였다. 또 읍

지(邑誌)에 '임진왜란 때 의병 100여명을 모아 팔공산에 진을 치고 적을 죽였으며 가산을 기울여 군량에 충당하였다. 그러다 객재우의 군과 합쳐 화왕산성을 지켰으며 수차 공을 세웠다. 모친상을 당하여 3년 시묘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공의 사적기는 지중추부사 권상일(權相一), 유의견, 이규, 김양근, 권보, 이경환 등 많은 분들이 썼으니 공에 대하여 다투어 글을 남김을 자랑으로 여긴 듯하다.

아들은 하양 훈도(訓導)를 한 응립(應立)이고 손(孫)은 3형제를 두고 고손 죽헌공(竹軒公) 칭형(稱衡)을 위한 송모제가 내남면 망성리에 있다.

공은 왜란에 창의하여 왜군과 싸운 8년간을 제외하고 한평생 칠음(七音)의 훈도(訓導)로서 학행(學行)을 닦았으니 매헌실기(梅軒實記)를 고찰하면

[문(文)은 심덕(心德)이 인(仁)임에 대하여 마음의 온전한 덕(德)은 하늘의 이치(理致)가 아님이 없지만 인욕(人慾)에 얽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仁)을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을 이겨내어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다. 공자(孔子)의 말은 인(仁)을 실천하는 도(道)를 말하였고 맹자(孟子)의 논의는 인(仁)을 구하는 방법을 논한 것이다. 비록 높고 낮으며 얕고 깊은 차이는 있으나 그 인(仁)을 실천하는 이치는 결코 다르지 않다. 자기의 사심(私心)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려는 가르침이 없다면 하늘의 이치(理致)를 누가 알았겠으며 남을 용서(容恕)하고 힘써 행하라는 말씀이 없다면 인(仁)을 구함이 이보다 더 가까운 것을 누가 알았으리오 대제 공자는 안연(顔淵)의 물음에 대답한 까닭으로 전체의 인(仁)을 말씀하기에 이르렀고 맹자(孟子)는 세속(世俗)의 폐단(弊端)을 구하려 하였기에 인(仁)을 구하는 방법(方法)으로 깨우쳤으니 각기 소재가 달랐기 때문에 말이 같지 않았을 따름이다. 아, 학문(學問)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남을 용서(容恕)하고 이치(理致)를 터득(德得)하여 사심(私心)을 버릴 수 있다면 인(仁)은 바로 그 가운데 있으니 어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가?

문운운(問云云) 인(仁)으로 복종시킬 사람이 없었지만 혹 교화(教化)하기 어려운 자(者)도 있으며 성(誠)으로 감동(感動)시킬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진 자는 아무도 대적(對敵)하지 못한다(仁者無敵)는 말은 왕도정치(王道政治)가 복종(服從)시키지 못함이 없다는 것이고 태왕이 빈(郕)을 떠난 것은 교화(教化)하기 어려운 오랑캐 때문이다. 지극히 성(誠)하면 감동(感動)한다는 것은 정성(精誠)으로 감동(感動)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가리킨 것이고 비간(比干)이 간하다 죽은 것은 깨우치지 못한 주(紂)나라의 주왕의 악(惡)함 때문이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결과 속이 다르지만 사람의 도리를 보면 진실로 앞과 뒤의 두 가지 이치(理致)가 없는데 대하여 대개 사람이 군자(君子)가 되고 소인(小人)이 되는 것은 그가 하는 행위(行爲)가 착한가의 여부로 판단된다. 본래의 뜻이 착하지 못하면 자신(自身)의 수양(修養)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본래 착하더라도 마음으로 편한 것이 정성(精誠)스럽지 못하면 오래도록 변하지 않을 것이 아니다. 공자(孔子)께서 어찌 숨기셨는가? 하는 말은 마음의 나타남이요 눈(目)은 정신(精神)의 드러남이다. 마음이 진실로 바르면 말로 성실(誠實)하여 거짓이 없고 마음이 진실로 바르지 않으면 눈에 나타나는 것이 흩어지고 어두울 것이다. 맹자(孟子)의 '어찌 사람을 속이리오' 라는 말이 나온 까닭이다.

결과를 보지 않고도 그 사람의 사악(邪惡)하고 바름을 분별하겠는가? 성현(聖賢)이 사람을 보는 것은 안을 살펴 밖을 볼 수도 있고 밖을 보아서 안을 살필 수도 있으니 어찌 안과 밖이 같지 않다고 하여 성현(聖賢)의 사람보는 법(法)이 치우치고 편체(偏滯)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공의 충(忠)에 대하여 서에 유성룡 도체찰사(都體察使)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한다. "모관 권사민은 삼가 목욕제개하고 도체찰사(都體察使) 상공함하(相公閣下)께 글을 올립니다. 듣건대 각 진(陣)의 장수들이 군보(軍保)역을 면해주고 재물을 받는 부서)와 납속(納粟)병란에 백성이 나라에 곡식을 바치는 것)을 권장하고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비변사(備邊司)가 곡식을 납부하라는 명을 내자 섬수가 너무 많아 백성이 섬수를 채우기 어렵고 적의 형세가 고을을 침범하여 사람을 죽이고 볼 지르는 등 험악한 실정입니다. 백성은 하루 한 끼를 먹어도 굶주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조정에서는 직첩(職帖)을 각 진영(陣營)에 내리되 군보(軍保)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도 운운... 임진, 계사, 갑오년 굶어 죽어도 바라만 보고 있으니 금 한 덩어리로 곡식 한 술까지 어려웠습니다.

옛날 자공(子貢)이 무기와 식량 중에 버릴 수 있는 것에 물어 가로대 '자고로 죽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백성에게 신의를 받지 못하면 설 데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대제 믿음이란 임금의 큰 보배입니다. ... 삼가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하였다.

류영로(柳榮魯)의 매헌실기 발문에서 "공이 유성룡에게 올린 글에 대제 창의(倡義)하여 적을 칠 때 곡식을 모아 군사를 먹이는 사람들에게 고신(告身) 내려주기를 청하는 글이다. 공은 오직 조정이 백성들에게 신의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이며 글 가득히 충의(忠義)를 볼 수 있다. 또한 당시에 홍의장군(紅衣將軍)을 도와 의병을 모으던 기상이 뚜렷이 보여 깨달을 수 있으니 매헌공의 이 글은 진실로 안진경의 서첩과 더불어 길이 세상에 전해져 사람은 죽어도 그 정신(精神)은 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헌공의 공적(功績)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7세손 학인(學仁)이 실록(實錄)을 소매에 넣고 실정을 호소하니 선원(先源)을 생각하는 효심을 매헌공의 영혼도 '나에게도 후손이 있구나' 할 것이다." 하였다.

여강 이해희의 묘갈명에 '일곱 고을의 弟子를 가르쳤으니 선비들이 목마른자 샘물에 나가듯 따랐다. 임진년 난리에 의병을 일으키셨고 모친상(母親喪)에 여막(廬幕)을 지키는데 맹수(猛獸)도 감복(感服)하였다. 효자(孝子)의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우게 되었다. 생각건대 충효(忠孝)는 앞에서 크게 빛나 후세에 비추어 주니 내 명(銘)을 써 이를 밝혀주노라 教授七邑 士若赴泉 協倡義旅 慮守之多 猛獸且服 褒忠焯燁 孝子故闕 惟忠與孝 我詔之垂示永久' 라 하였다.

(자료제공 : 후손 권창기 편술 현봉 권경석)



매헌공 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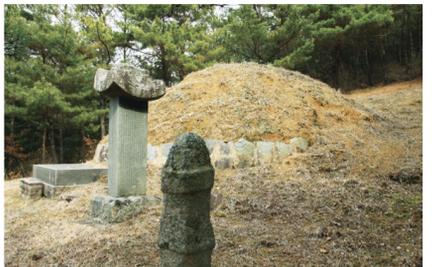
유성룡에게 보낸 청원문



묘정비



매헌공 정려비



매헌공 묘소(경주시 내남면 노곡)



매헌공 묘소(경주시 내남면 노곡)



31세 모암공 학인의 재사 모암정(망성리)



고손 죽헌공 칭형의 송모제(내남면 망성리)



망성리 매헌공 후손 세계지